

대안보건의료체계를 모색하는 캐나다 무상의료 참여연구 프로젝트 - 의료 공공성, 어디까지 가봤니?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대안보건의료체계를 찾아 영국으로 다녀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여름에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 지구 반대편 캐나다로 탐방을 다녀올까 합니다. 단순한 기행이라기보다는 '대안 모색'이라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참여" 하고 "공부"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 왜 캐나다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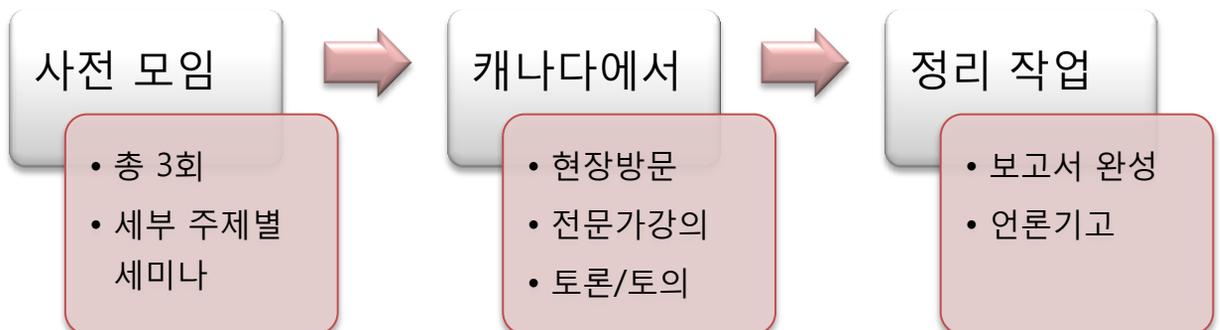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인 '공적 재정체계와 민간 전달체계(Publicly financed, privately delivered)'를 캐나다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민간 주도의 전달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NHS와 비슷한 수준의 '무상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료 사유화라는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때문에 무상의료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 또 사유화/상업화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도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 참가자들에게 이런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번 탐방은 함께 공부하는 '참여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공동연구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국 전 3회의 사전 세미나를 통해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현장방문과 함께 관련 전문가나 활동가들의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하루 일정은 정리토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는 우리가 직접 보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만큼 배우고 나누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비용과 신청방법은?

- 일정: 8월 25일 출발 ~ 9월 2일 한국도착 (8박 9일)
- 1인당 참가경비: 295만원 (항공료, 숙박, 식사, 현지 교통, 통역 등 포함)
- 모집인원: 입금 기준 선착순 15명 (**신청마감: 5월 15일**)
- 참가신청: 아래 사항을 canadahealth2012@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전화, E-mail, 이름, 소속(직업), 성별, 연락처, 여권번호, 여권 영문명 필수 기재
 - 주요 관심사 (이를 감안하여 팀 배정 및 보고서 작업 예정)
 - 메일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입금계좌 번호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 canadahealth2012@gmail.com 전화 070 8658-1848

※ 예정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기타
개괄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 개혁 과제와 전망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진료 클리닉 • 병원 - 공공병원, 영리병원 • 장기요양시설 • Community health center 	
주요 행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자 - 의회/정부/정당 •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 • 환자 단체 • 보건의료 NGO 	
이슈 1. 보건의료 사유화 (강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함의 • 캐나다의 의료사유화 	
이슈 2. 건강불평등/건강권 (강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와 건강불평등 • Minority health - 지역사회 참여연구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agara Falls, Norman Bethune house, Toronto city tour... 	

